

나의 英文學과 演劇

呂 石 基
(高麗大 英語英文學科)

이런 假定的 설문이 있다. ‘만약 인생을 다시 산다면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 필자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 것인가? ‘모르겠다. 그것은 살아 보아야만 알 수 있는 문제니까.’ 아마 그런 류의 대답밖에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듣는 취지가 그런 대답을 예상한 것은 아닐테니까 달리 말한다면 이렇게나 될까. ‘어차피 지금과 비슷한 삶을 살아가지 않겠느냐’고. 특별한 이유는 없다. 있다면 대단히 보람 있는 것도 아닌 대신에 대신할 만한 더 값진 인생이 필자에게는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뜻에서 이 글은 ‘큰 보람은 없으며 더 값진 것도 찾지 못한’ 한 인간의 知的 遍歷의 경위서라고 보아주면 좋겠다.

中學校 時節

필자는 중등 교육을 시골에서 받았다. 집이 있었던 慶北 金泉에는 생긴 지 얼마되지 않았던 私立 高等普通學校가 있었다. 필자의 형제 자매는 모두 大邱의 공립 학교를 다녔으나 필자만은 집에서 통학할 수 있는 金泉高普에 진학했다. 아직 졸업생도 나오지 않은 한 학년 한 학급만의 학교였다. 거기서 5년을 다니는 동안 필자는 언제나 반에서 가장 어린 나이의 학생이다 ‘코흘리개’였고 우등생과는 거리가 먼 아이였

다. 다만 한 가지 특출난 점이 있었다면 4,5학년(지금의 고등학교 1,2학년)을 통틀어 模擬考査(진학에 대비한)에서 늘 1등을 차지하였다는 것뿐이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한번을 딱 학생에게 빼앗긴 적이 있었는데 그는 우수한 轉學生(大邱師範에 다니다 쫓겨난)으로 나이기도 몇 살인가 위였고 책(교과서나 참고서가 아닌)도 훨씬 많이 읽은 사람처럼 보였다. 그는 뒤에 매우 불행한 경위로 日帝末期의 學兵事件 때 뜻하지 않은 죽음을 당하였다.

당시는 進學指導라든가 상급 학교에 가려는 경쟁적 분위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C라든가 K라든가 하는 지금 생각해 보아도 超一流의 스승들을 모시기는 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교육’의 측면이지 기술적 지도와는 관계가 없었다. 그래서 필자는 중학 3년 가을에 들어서면서 수험 준비를 별도로 하기로 작정했다. 당시에 유행하던 몇 가지 英語와 算學 관계 참고서를 구독하고 일본의 歐文社라는 곳에서 시작한 通信添削 방식의 진학 지도에 정기적으로 응하기로 했다. 모의고사에서 1등을 한 것도 바로 그 덕택이었다.

그 수험 준비를 하면서 필자는 그것이 일종의 知的 挑戰이라는 것을 어렵듯하나 깨달았던 것 같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무엇인가에 도전하는 방법을 배우기 마련인데, 그 가장 초보적

경우로서 육체적인 것, 즉 축구든 스케이트 타는 일이든 자전거 타기든, 그런데 전혀 ‘도전’ 할 줄 몰랐던 필자는 우습게도 이 자발적인 시험 공부에서 하나의 도전의 방법을 찾아냈던 게 아닌가 생각된다. 특히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은 즐거움의 하나였다. 지금도 기억나지만 당시 일본의 어느 舊制高校의 입학 시험 수학 문제는 힘들기로 定評이 나있었는데, 그 문제 중 하나를 풀었을 때의 일이다. 그때 필자에게는 자기 능력에 대한 확인보다 그것을 풀어 나가는 과정에서 오는 쾌감이 더 컸었다.

필자는 중학 3년 때 이미 자신의 進學方向을 결정해 버렸다. 대학은 工科, 전공은 電氣工學, 그것도 弱電, 즉 전자 또는 통신 공학이라고 혼자서 단정해 버린 것이다. 당시는 물론 지금이라도 빠른 편이 아닌가 생각된다. 누가 곁에서 助言해 주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 내용을 알 만한 주위 환경이 존재했던 것도 아니다. 그러나 아롱든 필자는 그 길을 택했으며 그렇게 하기 위해 상급 학교를 가리라고 마음 먹었던 것이다. 그리고 기왕이면 일본으로 건너가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전문 학교가 아니라 대학을, 그것도 당시의 官學인 帝國大學에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자면 高等學校(舊制)를 거쳐야 한다. 힘든 關門이었다. 그런 관계로 해서 필자의 중학 5년간에는 응답 있어야 했던 餘他的 知的 情緒의 遍歷의 흔적이 없다. 그 술한 문학 책 한 권 읽을 기회도 없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시골 학교에 의외로 많은 世界文學全集(물론 日譯本) 또는 ‘岩波文庫’ 같은 당시의 知的 水準을 가능시킬 수 있는 책들이 있었다. 수학 교사 C선생의 배려가 아니었던가 한다. 그 분은 교양이나 知的 成熟에 대한 젊은이의 잠재적 욕구를 일깨워 주려고 매우 열성적이었다. 그러나 당시의 우리들이 거기에 얼마만큼 보답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그래서 이 뛰어난 스승에 대한 죄스러움이 뒤에도 계속 남아 있었다.

필자가 다니던 중학교는 崔松雪堂이라는 자수성가한 地主 할머니가 세운 학교였다. 그 시골 학교가 갖는 소박함이나 野性味는 도회적 세련미와 아주 거리가 먼 것이었지만 그만큼 現實主義에 들들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 환

경으로 해서 필자가 어떤 잠재적 영향을 받았는지 꼬집어 이야기할 수는 없으나, 억지로 말할 자면 出世指向的인 것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 같은 것을 키워 주는 데 영향을 주었을런지 모르겠다. 이 말과 직접 연관되는 것은 아니지만 필자는 평생에 한번도 法科 또는 醫科—굳이 예로 들자면 누구나 으레껏 점 찍게 마련인 소위 인기 학과에 대해 관심을 가져 본 적이 없다. 이것은 아마도 필자의 氣質이나 趣向과 관계 있을 뿐이지 거부감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日本으로 건너가서

아롱든 필자는 일본의 舊制 高等學校에 들어갔다. 1939년의 일이다. 당시의 舊制學校는 지금 대학 교양 과정과 비슷하고 帝國大學에 진학하는 예비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쉽게 말해서 엘리트 코스였다. 특히 法科 같은 경우 出世 길을 반쯤은 보장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참고 삼아 일본서도 지금은 없어진 이 제도의 특색을 들자면 첫째는 學制 그 자체에 있다. 유럽의 전통 방식을 따왔다는 이 제도의 특징은 전문 지식의 습득에 앞서 교양교육만을 실시하는데 있다. 특히 외국어 교육에 置重하나 實用性은 그리 찾지 않는다. 주목적은 외국어(제1, 제2) 습득을 통해 서구 학문을 섭취하자는 데 있고, 教科編成을 교양교육 위주로 해서 전문적 강제성이 없는 것이 특색이다. 둘째로는 부분적이지만 學寮制를 도입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물론 튜터(tutor) 같은 것이 있었던 것은 아니나 전체적 분위기에 知的인 것을 포함, 어떤 風潮랄까 전통이 있어 누구나 그 속에서 숨쉬게 된다. 셋째로는 해방감, 자유분방함이다. 우선 과중한 학교 교육의 압박이 없었다는 점과 더욱 중요하게는 ‘무엇이든’ 하고 싶은 것, 읽고 싶은 것, 생각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다는 일종의 해방감, 물론 당시의 軍國主義 日本이라는 절대적 테두리 안에서서이기는 하지만, 아롱든 술마시는 일, 담배 피우는 일에서부터 ‘인생은 무엇인가’, ‘철학은 어떻게 배우는 것인가’ 하는 데 이르기까지 20세 전후의 젊은이에게 인생과 학

문에 대한 門戶를 활짝 열어 주었다는 의미에서 매우 적절한 것이었다.

필자는 학교 공부를 거의 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 대신 이것저것 닦치는 대로, 그 분위기가 지배하는 테두리 안에서의 독서에 몰두할 수 있었고, 중학 시절에 전적으로 막혀 있었던 예술 감상—기껏해야 영화 정도이지만—을 즐길 수 있었고, 그리고 장래의 전공에 대해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 필자는 工學을 하기 위해 理科에 들어갔지만 그 쪽 학과의 공부는 거의 전혀 두었다.

그 곳에서 3년간 교실에서 ‘배운 것’은 별로 없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많은 것을 얻었다는 느낌을 가졌다. 학문적으로 필자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준 선생이 여럿 있었던 것으로 기억되지 않는다. 그 선생들이 미흡해서가 아니다. 개인적으로 사귄 기회가 없었다. 그럴 필요 없이도 필자는 얼마든지 스스로 ‘즐길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필자가 高校 3년에 진급하면서 文科로 이적했기 때문이다. 중학 3년부서의 立志를 필자는 미련 없이 포기해 버린 것이다.

그러나 대신에 무엇을 전공하겠는가에 대한 확신은 서지 않았다. 그저 ‘知的으로’ 자유로와지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社會科學에 대한 관심은 희박했고 人文學的 思考에 대한 흥미는 있었으며 논리적 훈련을 감당할 자신은 없었다. 그렇다고 創作(어떤 종류이건)에 적합한 소질이 필자에게 있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高校 3년은 필자에게 많은 것을 가져다 주었지만 그와 동시에 필자를 얼마간 허공에 뜨게 만들었던 것이다.

다만 꼬집어서 말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아니었으나 문학 또는 예술과 관계된 학과를 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은 있었고, 연극 또는 영화 같은 것을 ‘공부’ 해 보면 좋겠다는 潜在的 욕구가 있었던 것만은 틀림없다. 필자는 그때까지도 입센의 近代劇을 읽고서 心辭할 정도에 이르지 못했으며 셰익스피어의 번역본 「햄릿」을 읽으면서 그것이 어째서 古典이야 하는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보다는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이나 톨스토이의 「전

쟁과 평화」에 훨씬 더 매료되어 있었다.

문학 소년 또는 청년의 시기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필자는 詩로써 문학에 入門하는 기회를 놓쳤다. 그것이 文學的 想像力의 빈곤이나 文章 修業에 지장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안 것은 훨씬 뒤의 일이다. 그 대신 소설은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펼쳐 보여 주는 효과적인 수단이었다. 필자가 살지 못하거나 살아 보기 힘든 ‘삶’을 픽션化하여 追體驗시켜 주는 데는 그만이었다. 그리고 희곡은 우선 그 形式에서부터 일종의 거부감을 유발한다. 幕과 場의 人爲的 구분, 앞머리에 나오는 登場人物表, 대사로만 구성되는 基本的 성격—이 모든 것이 生硬하다는 느낌을 준다. 그러나 결국 필자는 그 견고한 形式의 틀에 흥미를 느끼고, 거기에 가두어 놓은 또 하나의 삶 즉, 리얼리티의 再創造에 이르는 그 독특한 방식에 魅了되기 시작했다. 高校 시절에는 아마 잘 몰랐을 것이다. 매우 서서히 특특하게 된 결과이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世界文學全集 식으로 읽는 희곡은 필자에게 전혀 흥미를 주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건 그렇고, 필자는 대학에 진학할 막바지가 되어서도 어느 학과를 택할 것인가 망설였다.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現實適應의인 쪽으로 經濟學을 생각해 보았고 그 다음은 文學이었는데 그것이 英文學이 되어야 한다는 데 상당한 망설임을 느꼈던 것도 사실이다. 왜냐하면 필자가 영문학을 좋아해야 할 어떤 이유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佛文學? 더 ‘멋’이 있는 것처럼 생각되었으나 불행히도 필자는 프랑스어를 제 2外國語로 택할 기회가 없었다. 결국 필자는 경제학도 불문학(어쩌면 美學科라는 것)도 버리고 ‘평범하게’ 영문과를 택하였다. 집에는 전혀 상의드리지 않은 채 혼자 정한 것이었다. 뒤에 家親께서는 매우 상심하셨고(그러나 꾸중은 없었다), 사돈댁 査丈 어른에게는 왜 법과를 가지 않았느냐고 못내 안타까운 듯한 꾸중을 듣게 된 결과를 가져왔다. 1942년 3월의 일이다. 太平洋戰爭을 일으킨 일본이 아직은 氣高萬丈할 무렵이었다. 거리에 ‘영어를 하는 자는 國賊’이라는 포어가 나붙을 때였다.

어떤 大學生活

1942년 3월부터 '43년 11월 즉, 한국인 학생을 學兵으로 끌고 가는 강압적 조치가 있기까지 1년 9개월간 필자는 東京帝國大學의 英文科 학생이었다. 영문학에 대한 관심은 대체로 低調하였으나 다만 한 가지 중요한 '사건'에 부딪혔다. 그것은 셰익스피어에의 開眼이었다. 당시 저명한 교수의 강의도 별반 흥미를 돌구는 것이 아닌 가운데 한 가지 예외로 N교수라는 40대의 氣銳가 열정적으로 강독하던 「리어왕」의 시간은 필자가 그때까지 몰랐던 셰익스피어의 세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기틀을 제공해 주었다. 그분의 강의 자체도 재미있었거니와 그것을 통해서 셰익스피어가 '大文豪'가 아니라 살아 있는 극작가로서 필자에게 와닿는 그 느낌이 더 소중했다. 일단 그 기틀만 마련되면 필자는 혼자서 셰익스피어의 숲 속으로 들어가 길을 잃지 않을 만큼 目測이 가능할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다.

이런 일이 일어난 지 10년 이상이 지난 뒤에 미국에서 필자는 또 한번 셰익스피어와의 '난남'을 경험하게 된다. 그때도 매개자는 30대 후반의 H교수라는 젊은 氣銳였고, 그가 인도해 준 곳은 일본의 N교수의 그것과는 한 次元 다른 또 하나의 셰익스피어학의 세계였다. 학문의 妙味를 그때 깨달은 것 같다.

이야기를 다시 돌리자. 그 시기 즉 日帝末期의 대학 영문과는 환기를 결여하고 있었으나 눈에 띄이는 制約은 없었다. 여전히 필자는 열심히 '파는' 학생이 되지 못했고 필자를 신기하게 만들어 주는 강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문과에 적을 두고 공부를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텍스트를 열심히 읽는 것인데 필자는 읽어도 끝이 없을 英文學의 그 숏한 작품을 끈기 있게 읽어 내는 習性을 기르지 못했다. 평생을 두고自愧하는 그 약점은 그때 심어졌던 것이다. 대학의 외국 문학 강의를 대부분 텍스트 강독에 바탕을 두고 있는 터라 읽는 것은 義務化되어 있다. 그러나 그럴 때 읽는 것은 대체로 범위가 한정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필자가 학생 시절, 또는 그 뒤에라도 좀더 왕성하게 작품을 읽어 두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다.

그때 대학 시절 필자는 약간 '덜레탄티즘'에 빠져 있었던 것 같다. 美學美術史學科 연구실에 가서 그림책을 들여다본다든가, '東洋音樂史'라는 강의를 들으러 다녔다든가, 하숙집에서 陝畫評論誌를 모아 놓고 거기에 열중했다든가, Theatre Arts Monthly라는 '20년대에 미국에서 발행된 연구 잡지 6년치를 헌책집에서 발견하자 1년치 수업료에 해당하는 액수를 쓸어넣어 그것을 몽땅 샀다든가 하는 등의 일이 그것이다. 물론 미술도 음악도 영화도 필자를 '전문적'이게 만들어 주지는 않았다. 일종의 好事癖이다. 지금까지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필자의 버릇이지만 심히 몰두하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모든 好事的 취향을 準專門化(?)시키는 데는 실패했다. 조금은 아쉬운 점이다.

이런 버릇과 직접 관계 있는 것은 아니나 그 무렵부터 필자는 학문이나 예술에 있어서 중요성의 差等を 두지 않게 되었다.

어떤 학문의 분야가 餘他の 것보다 더 '존경받아야' 된다는가, 반대로 '경멸당해야' 한다는가 하는 생각이 별로 없는 것이다. 世俗의으로 더 평가받는다고 해서 그것을 더 존경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해방되었고, 오히려 자기 學問分野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사람을 조금은 '덜 깨우친' 사람으로 간주하는 버릇이 생겼다. 필자와 관계 없는 분야의 사람들에게서 필자의 학문에 적용(또는 이해)될 듯한 이야기를 들을 때 매우 기쁘다. 이것은 물론 '덜레탄티즘'과는 관계 없는 것이다. 필자는 내심으로 이런 것을 '知的寬容性'이 아닌가 생각한다. 학술이건 인성이건 이러한 리버럴한 태도는 매우 소중한 것으로 필자는 생각하는 것이다.

大學教授 40년

1944년초에 필자는 學兵을 거부하고 대신 징용을 당하여 黃海道 沙里院 근처에 있는 시멘트 공장에서 일하다가 해방과 더불어 풀려났다. 중단된 학업을 다시 끝마치기 위해 '46년 봄 京城大學에 편입학하여 반년 뒤에 졸업했다. 필자가 갖고 있는學位는 그때 받은 文學士뿐이다(1979년에 慶北大學에서 받은 名譽文學博士 학위는

별도). 그것으로 죽한 세상이었기 때문에 필자는 그 해 가을에 청량리에 있었던 서울文理大豫科에 出講하게 되었다. 理科의 영어를 맡았다. 공교롭게도 필자가 일본의 舊制學校에 들어갔을 때와 비슷한 과였고, 그때 사용했던 교재(Milne의 수필집)가 필자가 처음 배웠던 것과 같았던 점도 무슨 인연인지 모르겠다. 市販한 것이 아니라 당시 史學科에 편입해 온 高校 후배 K형의 주선으로 공들여 만든 것이었다. 약간은 교양적 취향(교훈적 내용의 글이 아니라는 의미에서)의 그 글을 읽은 학생 중에는 기억에 남았노라고 뒤에 필자에게 귀뜸해 준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國大案 반대 투쟁 속에 불안정했던 때라 겨울에 시골에 내려온 필자는 다시 서울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가 마침 大邱師範大學에 가 있던 大學同窓 K형(그는 철학과 교수였다)의 권유를 받아 그 곳으로 가게 되었다. 대구에 집이 남아 있었던 것도 이유 중의 하나였다. 1947년 4월, 필자 나이 25세 때 일이다. 그리하여 그 곳에서 7년, '53년 서울로 돌아오는 高麗大를 따라 오고서 33년 도합 40년이란 긴 세월을 필자는 직업으로서 대학 교원밖에 한 것이 없다. 그 사이 1955년 가을에 1년간 미국을 다녀와 전쟁과 해방으로 不實하게 끝나쳐야 했던 大學過程을 얼마간 보충한 셈이 되었다.

外國文學 전공자에 따라다니는 일종의 콤플렉스—극단적으로 말해서 교사이자 연구자가 되기는 힘든 것이 아니냐 하는 잠재적 감정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누구에게나 찾아볼 수 있던 현상이 아닌가 한다. '업적'을 쌓기 힘들다는 교충도 있다. 외국 문학과 자국 문학 사이에서 방황하는 文化의 周邊人(marginal man)으로서의 自意識이 따라다니기도 한다. 대학 강단에 서 있는 동안 별반 느끼지 않아도 되는 이런 반성이 연구자로서의 '나'를 괴롭히기도 했다. 어쩌면 그것이 때로는 연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일종의 口實로서 작용하지 않았던가 反省해 보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생각을 떨쳐버렸고 문학 연구란 그 따위 自意識과는 아무 관계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학문의 創意性이란 연구자 자신의 領域 속에서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자기 이름이 불

은 學名을 반드시 찾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젊은 世代에게 그런 自意識이 두드러져 있을 것 같지는 않다. 그들은 보다 더 主體的인 思考의 소유자일 것이다. 필자는 적어도 그렇게 믿고 싶다.

1960년을 전후해서 우리들 외국 문학 전공자들은 부지런하게 외국 작품 번역에 열중하였다. 당시는 世界文學全集 출판의 전성기여서 번역자들이 크게 바빴던 게 사실이다. 그때 그들, 다시 말해서 우리 世代의 외국 문학자들은 한국인 독자의 수준 높은 교양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데 적지 않은 공헌을 했다고 믿는다. 하나의 時代的 使命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지금의 외국 문학 전공자들이 '번역 같은 일'에 專念할 필요가 없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아니면 지금은 무엇이건 分業化되어 번역조차도 '번역 전문가'가 따로 있기 때문일까? 거기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리라. 그러나 어쨌든 우리 世代의 번역(다 좋다는 것은 아니지만) 붐은 그 자체가 하나의 '업적'임에 틀림없다.

번역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기억나는 것이 있다. 1971년 캐나다 벤쿠우버에서 처음으로 <세계 셰익스피어 회의>라는 것이 열렸다. 한국에서도 4명이 참석했는데 그때 우리 일행은 '64년에 발간된 「셰익스피어 全集」 2종을 들고 가주최측에 기증하였다. 그때 느낀 것은 한국이란 나라가 자기네 말로 셰익스피어 全集을 발간할 수 있었다는데 대하여 그들이 우리, 아니 더 정확히 말해서 우리말에 대해 표시한 일종의 '敬意'였다. 온 세계가 그를 共有하고 있다는 데 대한 그 이상의 확실한 담보가 어디에 있겠는가? 이런 '발견'도 사실은 앞서 말한 외국 문학 연구자의 콤플렉스를 해소하는 契因으로 작용한 것임에 틀림없다.

끝으로 필자의 학문과 인생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해 言及해야겠다. 필자는 필자 전공인 드라마와의 관련에서 아카데미한 영역 밖을 자주 侵犯하였다. 연구 평론의 分野이다. 1962년 南山의 드라마센터 開館과 더불어 작고한 東朗 柳致眞 선생의 권유로 연극계와 인연을 맺은 뒤 대학 바깥의 '外道'를 필자는 부지런히 한 셈이었다. 한국 영어영문학회 회장을

지난 다음에 국제극예술협회(ITI) 한국 본부 위원장직을 거친 것도 그런 연유이고 「演劇評論」이라는 계간지를 10년 정도 발간한 것도 그 활동의 一環이었다. 國立劇場의 자문위원 노릇도 오래했고, 한국 劇作 워크숍을 主導하여 젊은 극작가 양성에 한 몫을 한 것도 그런 노력의 일부였다. 이 모든 것은 사실 필자에게 있어 ‘학문’의 필요한 延長이었다. 그러기에 필자는 연극의 실제, 예컨대 劇團活動에는 일체 관계가 없었고, 소질이 없는 劇作이나 演出은 넘나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말하자면 여기서는 ‘好事癖’을 철저히 배제하였던 것이다. 왜냐하면 필자 전공 분야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10년간 필자는 아시아演劇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西洋으로 들어가서 동양으로 回歸한다는 그런 공식적 이야기는 아니다. 兩者에 대해 알고 있는 그나마라도 對比해 보는 데서 ‘연극이란 원래 무엇이었던가’를 좀더 浮刻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서이다. 하나의 文化現象으로서 넓은 視野에서 演劇行事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東과 西의 서로 異質적인 文化樣態 사이에 ‘受容’이 얼마나 힘들면서 동시에 필요한가를 규명해 보코자 하기 때문이다. 그 동안 써 모은 것을 묶어 조그만 한 권의 책을 大學定年이 되는 금년 여름쯤에 펴내는 것이 지금의 所望이다. *